



뜻

하지 않게 발생한 다이옥신 파동으로 인해 돈육시장에 새로운 변화가 대두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소비자들의 “수입돈육 기피, 국산돈육 선호”현상이 시장에 뚜렷하게 자리잡으면서 국산돈육에 대한 소비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다이옥신 파동이 축산물 안정성에 대한 경각심을 다시 한번 깨우치게 하는 중요 계기가 되기도 하였지만 한편으로는 돼지고기가 수입되고 있다는 것조차 모르고 있던 많은 소비자들로 하여금 국산돈육 특히 국산냉장육

현상이 상당 기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봄 이후 양돈사료 생산량은 전년의 IMF시기보다도 5% 이상 계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돼지 부족 현상은 실로 매우 심각한 지경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번 파동에서 보듯 국산 돈육의 안정성, 위생성에 대한 소비자들의 기대치는 실로 엄청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그간 일본에 돈육 수출을 하면서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던 항생



강세원 이사
(퓨리나코리아)

국산 돈육에 대한 선호 현상으로 돈가강세 지속될 듯

에 대한 구매선호를 일으키는 결정적 동기로 작용하였기 때문이다.

이와 동시에 수입육 시장도 상당기간 심각할 정도로 위축될 것으로 예상되며 따라서 가뜩이나 공급두수의 절대 부족에 시달리고 있는 돈육시장에 지육가 강세현상을 더욱 부추킬 것으로 전망된다.

예상치로는 지육 kg당 3,500원 이상을 웃돌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최근 사료생산실적 바탕으로 한 국내 예상 공급량은 아직도 늘어날 전망이 전혀 나타나지 않고 있어 이같은 강세

제 잔류문제 같은 위생문제가 결코 작은 문제가 아니었음도 입증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국제 개방화 시대에 우리 돼지고기의 국제경쟁력을 키우는 일이 이외로 간단한 관심과 노력으로도 이루어질 수 있음을 우리 모두에게 시사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모든 양돈업계가 이제부터라도 보다 안전하고 신선한 돈육생산을 위해 더욱 노력하고 소비자들에게도 국산돈육의 우수성을 보다 적극 홍보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양돈**



최동수 부장
(제일제당 육가공업무팀)

최 근 돈가 기록이 계속 경신되는 가운데 구매요율의 상승이 지속되고 있다.

최근 돈가 상승의 가장 큰 이유는 출하두수 부족이지만 부위육 가격이 동반상승이 없는 돈가만의 상승은 바람직한 현상으로 볼 수 없다.

또한 일본으로 수출하는 업체의 경우에는 엔화 환율 하락이 수출업체의 부담으로 이어져 2개의 바퀴로 굴러가는 국내 양돈과 육가공이 원만하게 굴러갈 수 있을지 의문시된다. 수출여건은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캐나다가 일본 수출 규격으로 생산하기 위한 별도의 공장이 설립되고 미국의 대형

7월 돈가는 3,200원~3,300원/kg 예상되고 이러한 추세는 당분간 유지될 것으로 전망된다. 6월 육류 소비감소가 7월 까지 이어질 것이라고는 생각되지 않아 예상돈가를 초과할 가능성은 더 많다고 볼 수 있다.

현재 돼지콜레라 박멸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정부, 농가, 단체의 노력은 국내 양돈 생존의 선택 요건이 아닌 필수, 기본요건이고 안전성의 문제 또한 위에서 언급했듯이 필수요건이 되었다.

과연 국내산 돈육은 안전한가에 대해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일본에서는 덴마크, 캐나다산 돈육을 청정 돈육으로 하여 판매하고 있다.

7월 돈가 3,200~3,300원/kg 당분간 유지전망

PACKER 또한 일본 전용 수출 LINE이 공장 내에 설치되어 있기에 수출여건이 악화되고 있다.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식품 안전에 대한 소비자의 기대가 높아지면서 국내 소비자 단체는 물론 외국의 단체에서도 식품 안전과 관련된 문제를 자주 거론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간 언론에 거의 보도되지 않은 일본 수출 한국산 돈육의 반송이 합성, 항균제의 초과 검출에 있다는 것과 일본의 수입 돈육에 대한 검사 항목이 추가되고 전면적인 검사에 돌입하겠다는 최근의 발표가 최근 다이옥신 1개 품목의 문제가 외국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 농가, 수출업체의 직접적인 문제로 대두될 것이다.

특히 햄, 소세지 MAKER에서는 덴마크산 청정 돈육을 사용했다고 제품에 표기하고 있고 캐나다산 돈육은 보리만을 사용한 사료를 사용하였다는 것을 BOX에 표기하여 판매하는데 그 반응은 매우 좋을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제는 무한경쟁시대에 돌입했다고 할 수 있다. 국내 현 여건하에서 고돈가가 지속될 때 자체 경쟁력을 확보하지 못한 농가는 도태될 수 밖에 없고 더 이상 정부의 지원에 의존하겠다는 생각은 버려야 한다.

정부가 과연 나를 보호해 줄 수 있을까라는 생각보다는 내 자신만이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야 한다는 생각이 앞서지 않는 한 경쟁속에서 살아남기 어렵기 때문이다. **양돈**



권영철 국장
(미트저널 편집국)

‘시장은 항상 특별한 변수가 생긴다’ 속설이 무방비 상태에서 여지 없이 두들겨 맞았다. 특히 다이옥신이라는 괴물에 의해 수입육에 있어서 벨기에산과 유탄을 맞은 프랑스산, 네덜란드산 유통업체들은 말 그대로 철퇴를 맞아 넉 다운이 됐다.

이와 함께 국산 유통업체들도 반대로 원활한 유통이 이뤄졌느냐면 그렇지도 않았다. 이는 소비자들의 인식이 ‘전체 돼지고기’로 옮겨 가면서 한 동안 영향권에 들어 있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러한 와중에서도 덴마크산과 미국산, 캐나다산 등은 일시에 유통 단가 인상을 추진했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산지 및 지육가격에는 영향을 주지 못하고 있다. 더욱이 다이옥신 파동이 발생했는데도 고가행진은 지속되고 있다.

수입육 유통시장은 이미 문제가 되고 있는 국가 외에는 이미 kg당 3백원~5백원 이상 인상시켰다. 국산 역시 이같은 수준에서 유통가격 인상을 단행했다.

그러나 소비시장은 유통시장 보다 회복세가 더디게 나타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결국 돼지고기 수급이 뭔가 잘못 돼 있다는 것을 뒷받침하고 있다는 것이다.

대포 맞은 유통시장, 안정기 접어들어

다. 기회를 놓칠 수 없다는 분위기가 형성됐기 때문이다. 이같은 현상은 국산 역시 같은 현상을 나타냈다.

특히 지난 6월 4일 이후 국내 돼지 지육값은 kg당 3천5백원을 형성했던 것이 일시에 3천원대로 떨어졌으나 3일 사이 다시 정상을 찾은 3천3백원 이상을 나타내기도 했다.

이같은 현상을 두고 유통업계에서는 “생산자들의 머리는 대단하다”는 평가를 하기도 했다. 이는 출하조절의 키를 가지고 있는 생산자들의 단결된 이유 외에는 나타날 수 없는 현상이기 때문이라고 유통업계는 분석했다.

수입육은 지난 5월 기준 4만8천9백여톤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대비 2.8배에 달하는 물량이

국내 가격이 현 상태로 지속될 경우 국내 육가공업체들의 어려움은 더욱 가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업계 일각에서는 올해를 넘기지 못하는 중소규모 육가공업체가 속속 나타날 것이라는 소문도 나돌고 있다. 또한 이러한 가격형성은 육가공업체들의 수입육 또는 수입산 가금육으로의 대체 현상을 불러오고 있다.

한편, 수입 돼지고기는 6월, 7월 전세계 돼지고기를 끌어 모으고 있다. 올 가을 돼지고기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생산자들의 현명한 판단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하루살이 생산자는 없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양돈**